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신년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7.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새해 첫 날 아침 청과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높으신 위엄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어지신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거칠고 어긋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녹아들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더러움은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 속 가장 깊은 성소에 머물러 주십시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이오나 온전히 주님의 피리가 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고통 받는 이웃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말 건네고, 그들과 더불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늘의 음성을 가려듣게 해주시고, 생명의 세상을 함께 만들자는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생명과 평화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약4:8	인도자
♠ 교 독 문	67. 신년 예배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260. 새벽부터 우리	다함께
성경봉독	수14:6-12	김근중 권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같이

헌신의 찬송 433.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의 발 앞에 있는 걸림들은 치워주고, 무너진 인정과 사랑의 다리를 놓기 위해 땀흘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걷는 길마다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고, 신뢰가 불신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가족과 함께	1월 기도의 밤
“복되게 사십시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조윤숙 선생 한상익 장로	인도자 정경례 집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박창운	고사일 송양진	박효선 최영선
	헌금위원	김철수 이인웅	김근종 곽혜자	배상순 문인옥

마음의 성소

1월 1일

우리 마음속의 고요한 성역이야말로 사랑의 힘을 자라게 하고 그것을 세상에 퍼뜨리는 곳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라. 세상의 모든 발전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나라 온 것이어야 하며, 강요할 수도 재촉할 수도 없는 것이다. 모든 탄생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 라이너 마리아 릴케(독일의 시인)

1월 2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옷차림을 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신념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군대에서나 그 외의 협력이 필요한 일에서처럼 통일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두드러진 행동을 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우리 자신의 고유함을 깨닫고, 나름대로의 박자에 맞추어 행진하라는 의미입니다.



보조를 맞추어 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만의 북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그로 하여금 그가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걷게 하라. 그 박자가 평범한 것이든 독특한 것이건 상관하지 말라. — 헨리 데이비드 소로(미국의 자연주의 사상가·작가)

1월 3일

육체의 움직임이 멈춘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달립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재잘거립니다. 마음의 수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또 마음을 잠재울 수 있으니까요. 마음의 재잘거림이 나쁘다는 의미도, 그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소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소음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

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 내리는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불멸을 꿈꾼다. — 수잔 어즈(미국의 소설가)

1월 4일

‘옷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아일랜드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물질로 평화와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의미겠지요.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물질적 풍요야말로 하느님이 우릴 사랑하신다는 징조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에 의존하지 않을수록 행복하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마음껏 누리던 제 친구 한 명이 최근에 집안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일상에서 꼭 필요한 물건만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지요. 그 친구는 소박한 삶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녀의 생각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바로 사람이 물건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이지요. 아마도 그녀는 ‘소유’야말로 ‘존재’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나 봅니다.



나는 스며든다. 초록빛 풀밭에, 꽃들에게,
그리고 살아 있는 물살에.
나는 깃든다. 죽지 않는 모든 것에.
나는 곧 생명이므로.

— 빙겐의 성녀 힐데가르트(11세기 독일의 수녀·시인·작곡가)

1월 5일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지혜는 우리를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과 예전에 대면할 수 없었던 것들에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다소 마음이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나면 예전에 알지 못했던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사실 그 속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숨겨진 채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태니슬라우스 케네디 수녀, <<영혼의 정원>>)

■ 마/음/으/로/읽/는/글

새해 새 아침은

새해/새 아침은/산 너머에서도
달력에서도 오지 않았다.

금가루 흩뿌리는/새 아침은
우리들의 대화/우리의 눈빛 속에서/열렸다.

보라/밭 밑에 널려진 골짜기
저 높은 억만개의 산봉우리마다
빛나는/눈부신 태양/새해엔

한반도 허리에서
철조망 지뢰들도/씻겨갔으면,

새해엔/아내랑 꼬마 아이들 손 이끌고
나도 그 깊은 우주의 바다에 빠져
달나라나 한 바퀴/돌아와 봤으면,

허나/새해 새 아침은/산에서도 바다에서도/오지 않는다.

금가루 흩뿌리는/새 아침은 우리들의 안창
영원으로 가는 수도자의 눈빛 속에서/구슬짓는다.

(신동엽)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최인환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박시내 박옥식 박병선 한상의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조관행 홍선희 안종일 정현주 임승동 백혜숙 박규석 박경선 박성수
 김애경 김용원 최종원 임창선 조문규 진정숙 김용길 최영혜 박옥순
 김혜권 고광송 이춘희 김시영 김희진 박홍재 노용래 차혜심 홍순구
 안홍숙 한인철 조윤숙 오자영 왕성환 강순배 장성호 조병무 송양진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이지훈 서재홍 박현우 정미경 김승현 김수진 이동천
 왕수명 이소순 황원순 황자순 김성자 조항신 서정순 이봉배 전영자
 이경남 백혜성 박범희 박미영 노미향

감사헌금:

윤정덕 문금석 김철수 유영남 백혜성 이계선 이소순 안길상 이형숙
 이재구 황선희 고숙이 박경원 왕성환 강순배 정원석 정채연 정채인
 이승영 이지은 백묘현 오자영 박영균 김애경 장재영 김재영 양재성
 박병구 임영호 제3남선교회

생일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곽혜자 김주희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심	심
베들레헬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새해** : 삼백 예수 닷새 내내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뜻대이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2. **기도의 밤** : 1월 4일(수) 오후 7시 30분에 새해 첫 번째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3. **봉사** : 4일(수) 오전 11시 15분에 종묘 급식 봉사, 6일(금) 오후 12시 30분에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가 있습니다.
4. **봉헌주일** : 다음 주일은 새해에 우리가 일년간 드릴 의무헌금을 작성하여 봉헌하는 봉헌주일입니다. 기도로 작성하시고 정성으로 감당하십시오.
5. **사경회** :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경회가 1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장년부 - 오전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집회는 저녁 7시 30분, MYF -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6. **새벽기도회** : 1월부터 <사무엘하> 강해를 시작합니다.
7. **구역회** : 1월 15일 오후 2시에 지하 친교실에서 일년 동안의 교회 살림 규모를 확정하고, 지방회 대표를 뽑는 구역회로 모입니다.
8. **신앙실천** :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루에 성경말씀을 3장 이상씩 읽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 헌화 : 안홍숙 집사 (홍순구 집사, 홍지희 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